

# “기후변화 막으려면 ‘탄소 여권’ 현실화 해야”



▲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위로 항공기가 날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상업용 항공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2% 증가했다. 연료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승객 1명당 배출량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 항공 교통량의 증가가 그 감소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서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권 가격은 매년 1.4% 상승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부 여행객들이 여행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항공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과잉) 등으로 인해 관광업에서의 탄소 배출 문제가 대두하면서 여행 빈도수를 제한하는 ‘탄소 여권’이라는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N방송은 전날 소그룹 모험여행 전문 여행사 ‘인트레피드 트래블’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관광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소 여권을 현실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탄소 여권이란 각 여행자에게 연간 탄소 허용량을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탄소 여권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과거 2008년 비슷한 개념이 영국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복잡성과 대중의 반대 가능성 등으로 도입 논의가 중단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분의 1에 달한다. 관광업에서도 특히 항공 교통의 탄소 배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일부 유럽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항공 운항을 금지한 바 있다.

크루즈선(대형 유람선)도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비판 받는다. 올해 유럽운송환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크루즈선은 아황산가스를 유럽의 전체 자동차 수인 2억9천 100만대를 합친 것보다 4배나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이미 크루즈선 입항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대형 유람선의 입항을 금지했고, 지난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의회는 크루즈 선박의 도심 항구 정박을 막았다.

인트레피드 트래블 보고서는 여행 방법뿐만 아니라 여행지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기온이 상승하면 해변 여행지 대신 서늘한 여행지가 인기를 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해결책이 무엇이 됐든 여행 습관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 대림 마루

모든 비즈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도매, 소매 최고급 제품! 100% 방수!  
\$1.99 부터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3564 Imperial Hwy. #A, Santa Fe Springs, CA 90670



무료 3D 디자인 • 무료 견적 • 20년 경력



CUCKOO 문의 환영

**연말 이벤트**  
부엌이나 화장실 리모델링 계약 하시는 분들에게 최고급 쿠쿠 비데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 계약금액 만불 이상

CUCKOO



캐비닛 / 카운터 탑 / 마루 / 타일 / 욕조 / 샤워 도어 / 창문

**CALI KITCHEN & BATH**  
HOME RENOVATION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캘리 키친 앤 베쓰가**  
라팔마에 쇼룸을 오픈했습니다.  
5438 La Palma Ave. La Palma CA 90623  
**714-206-7366**  
www.calikitchenbath.com  
calikitchenbath@gmail.com  
Licensed, Bonded and Insured St. Lic. #1073686